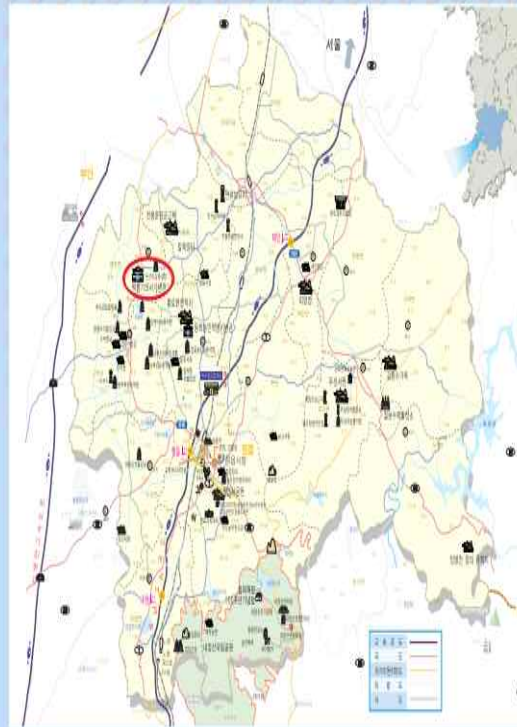




- 1. 의정사
- 2. 기념관
- 3. 의정문
- 4. 의정대
- 5. 의정각
- 6. 의정각
- 7. 의정각
- 8. 의정각
- 9. 의정각
- 10. 의정각
- 11. 의정각
- 12. 의정각
- 13. 의정각
- 14. 의정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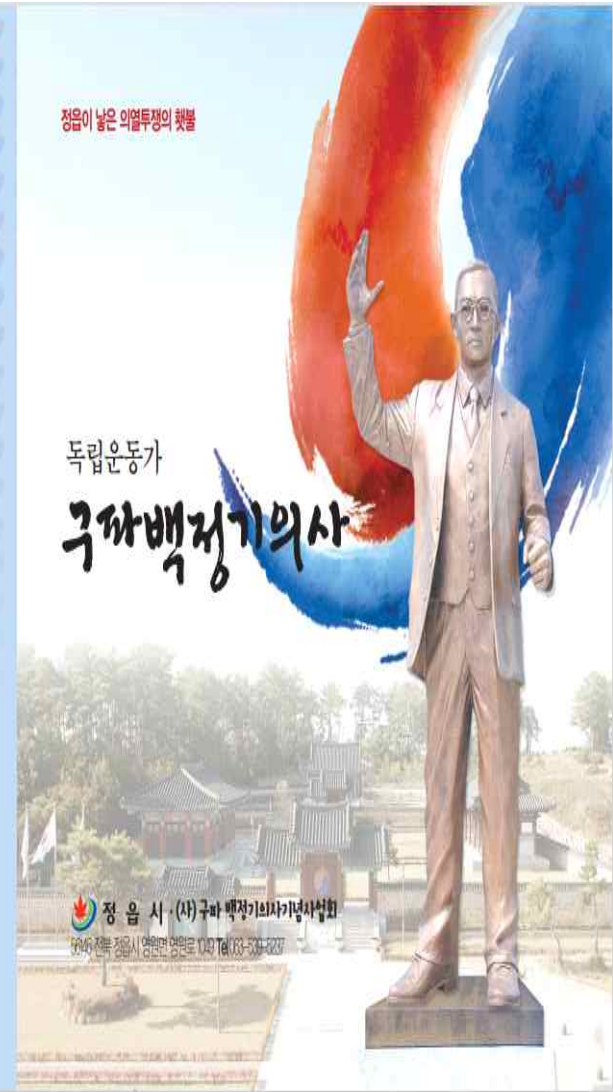
메모



경주시청 사회복지과 053-539-5452 경주시청 문화예술과 053-539-5482 경주시청 관광과 053-539-5235  
 예곡지사 박물관기념관 053-539-5400 경주시청 문화체육과 053-539-5222 통학농민대학기념관 053-539-9451  
 내장사국립공원 053-539-7975 고대사문화관 053-539-7342

구파 백정기 의사 기념관  
 guppa.baekjeonggi.org

관람시간 09:00~18:00  
 휴관 매주 월요일  
 단,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휴관



정음이 높은 의열투쟁의 횃불

독립운동가

구파백정기의의사

정 음 시 (사) 구파 백정기 의사 기념사업회  
 504-1 경북 경주시 영일면 경원로 119 Tel 053-539-5237



### 백성기원사가 걸어온 길

#### • 창설과 창립 (1988~1990)

- 1988 1월 부친상 차임 신안에서 창설
- 신년식 때 창립 1주년 기념
- 1990 부친상 차임 조물에서 창립

#### • 독립운동 향장 (1991~1993)

##### • 향장유적 고당 (1991~1993)

- 향장 유적 발굴 및 유적지를 향장유적지로 지정
- 1993 1월 1일 향장유적지를 향장유적지로 지정
- 1993 1월 1일 향장유적지를 향장유적지로 지정

##### • 향장유적지 조성 (1993~1995)

- 1993 1월 1일 향장유적지를 향장유적지로 지정
- 1993 1월 1일 향장유적지를 향장유적지로 지정
- 1993 1월 1일 향장유적지를 향장유적지로 지정

##### • 독립운동 기념관 (1995~1997)

- 1995 1월 1일 독립운동 기념관을 독립운동 기념관으로 지정
- 1995 1월 1일 독립운동 기념관을 독립운동 기념관으로 지정
- 1995 1월 1일 독립운동 기념관을 독립운동 기념관으로 지정

#### • 순국선열의탑 (1997~1999)

##### • 순국선열의탑 조성 (1997~1999)

- 1997 1월 1일 순국선열의탑을 순국선열의탑으로 지정
- 1997 1월 1일 순국선열의탑을 순국선열의탑으로 지정
- 1997 1월 1일 순국선열의탑을 순국선열의탑으로 지정

##### • 독립운동 기념관 (1999~2001)

- 1999 1월 1일 독립운동 기념관을 독립운동 기념관으로 지정
- 1999 1월 1일 독립운동 기념관을 독립운동 기념관으로 지정
- 1999 1월 1일 독립운동 기념관을 독립운동 기념관으로 지정

##### • 독립운동 기념관 (2001~2003)

- 2001 1월 1일 독립운동 기념관을 독립운동 기념관으로 지정
- 2001 1월 1일 독립운동 기념관을 독립운동 기념관으로 지정
- 2001 1월 1일 독립운동 기념관을 독립운동 기념관으로 지정

##### • 독립운동 기념관 (2003~2005)

- 2003 1월 1일 독립운동 기념관을 독립운동 기념관으로 지정
- 2003 1월 1일 독립운동 기념관을 독립운동 기념관으로 지정
- 2003 1월 1일 독립운동 기념관을 독립운동 기념관으로 지정



기념관전시관 내부



백성기원사 기념관 사설 헌정 고당



창의당 (현충비)



창의당 내부



고해지린대북도 지방기념물 제 100 호

### 주요활동

- 나라사랑교육
- 현충시설 체험
- 그림기 및 백일장 대회
- 신독립운동 역사 캠프





## 아나키즘

아나키즘(anarchism)이란 용어는 고대 그리스어 'an archos'에서 유래되었다. 아나키즘은 자연의 리듬에 따라 자유롭게 자율적인 삶을 구현하려는 인간의 본능에서 나온 것이다. 아나키즘적 사유의 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선각자에 의해 제시되어 왔으나 이것이 구체적인 이념으로 등장한 것은 프랑스 혁명과 볼셰비키 혁명사이의 사상사적 격동기에서 시작된다. 아나키즘은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평등의 이념으로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자유의 이념으로 공격하면서 한껏 자유인의 나래를 펼쳤다.

이러한 아나키즘은 현대사회에 와서 매우 예민적인 이념으로 각광받으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근래 한국 근대사에 대한 재조명이 거론되면서 일제 강점기의 아나키스트 독립투쟁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백정기의사는 1924년 29세때부터 북경에서 이회영, 이을규, 유자명, 정희안 등과 함께 조선무정부주의자 연맹을 결성하면서 아나키스트로서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 육상정의거

육상정 의거는 1933년 조선무정부주의자의 흑색공포단이 주중(駐中) 일본공사 아리요시아키라(有吉明)가 일본군 수뇌와 중국 친일 고관들을 모아 육상정(六三亭)이라는 요리집에서 연회를 연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타도하고자 했던 사건이다. 백정기의사는 계국주의의 원흉들을 처단하기 위해 이강훈, 원삼창의사와 함께 폭탄을 품었으나, 일본 첩자밀고로 안타깝게 붙잡히고 만다.

비록 의거는 실패하였지만 백의사의 살신성인적인 희생으로 중국 내의 항일세력이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등 동아시아 반도내의 국제관계 변화를 가져오게한 역사로 평가되고 있다.

육상정의거 실패로 피체된 백정기의사, 원삼창의사, 이강훈의사의 모습으로 일제에 대한 백 의사의 분노가 얼굴 표정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 국학백정기의사



구국백정기의사의 거결의

나의 구국열정은, 첫째 강도인 제로부터 주권과 독립을 쟁취함으로 둘째는 천제통치독재자를 타도하고 자유평화유복을 세움과 나의 인격을 높이고 이 나라를 위하여... 저에게 바치는 마지막 소원을...

## 유언

나는 몇달을 더 못살겠다. 그러나 동지들은 서러워 말라. 내가 죽어도 사상은 죽지 않을 것이며 열매를 맺는 날이 올것이다. 형들은 자중자애하여 슬욕한 후, 조국의 자주독립 거리의 영예를 위해서 지금 가진 그 의지, 그 심정으로 매진하기를 바란다. 평생 괴송스럽고 한되는 것은 노모에 대한 불효가 막심하다는 것이 잊혀지지 않을 뿐이고 조국의 자주독립이 오거든 나의 유골을 동지들의 손으로 가져다가 해방된 조국 땅 어디라도 좋으니 묻어주고 무궁화꽃 한 송이를 무덤위에 놓아주기 바란다.

▲ 이시하에 감옥에서 유폐하기 며칠전 이강훈의사, 원삼창의사에게 남긴 말

## 유일한 유품 편지



희석 형님에게 경애하는 형님이시여! 흐름같은 왕음은 과연 빠르기도 합니다. ... 좌우간 이제는 동경가서는 어떠한 생활을 하든지 가야할 셈인데, 전일에 대강 말씀한 바와 같이 곤난하신중이라도 꼭 할 수 있으면 70 원금만 보내주시겠습니까? ... 만일 여비가 되면 음 8월 15일에 출발예정이며 경성으로 잠깐 다녀갈까 합니다. ...

음 7월 20일 동생 백정기

▲ 백정기 의사가 독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서신



### 삼의사 유해봉환



▲ 최후부터 백정기 의사, 유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의 유해이다.

### 호랑공원 삼의사묘



▲ 최후부터 이봉창 의사, 유봉길 의사, 백정기 의사 묘이다.

### 이시하야형무소 수감과 옥중순국



백정기 의사, 이봉창 의사, 유봉길 의사 등 3명의 옥상형 옥중 투쟁 후 나라자유를 위해 투쟁하다 2년 6개월의 옥살이를 거느린 뒤 7월 1일



백정기 의사 등 3명의 이시하야형무소 옥중 투쟁 후 나라자유를 위해 투쟁하다 2년 6개월의 옥살이를 거느린 뒤 7월 1일



이시하야형무소의 옥중 투쟁



### 국악백정기 의사



의열사 (義烈祠)



기념관 (紀念館)



### 국악백정기 의사의 기념관

전북 정읍시 영원면 영원로 1043에 자리하고 있다. 정읍시의 국악백정기 의사 기념사업회는 백의사가 1934년 6월 5일 39세의 나이로 순국한 지 62년 후인 1996년부터 2004년까지 총 사업비 44억원을 들여 백의사 유적지 성역화 사업을 추진 2004년 6월 5일 백의사 순국 70주년에 맞춰 개관했다 기념관의 총 부지면적은 20,000여㎡로 이곳에는 백의사의 영정을 봉안하고 있는 의열사와 항일 활동과 유품 전시실명 공간인 구파 기념관을 비롯 청의당, 백의사의 동상과 어록비, 그리고 순국비와 추모비 등이 자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념관 입구에는 탐방객들의 편의를 위한 음수대와 파고라 등을 갖춘 휴식공간과 넓은 주차장도 마련돼 있다. 기념관은 이러한 추모시설과 편의시설을 바탕으로 명실공히 백의사 대표 성역화 장소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